

2023. 10. 31.(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30일 오후 12: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종수	2133-6610
기획행정팀장	연흥모	2133-6621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지하철 15분 내 무료 승차, 온기창고’… 서울시 창의행정 전국에 알린다

- 31일(화) 서울시청서 「제25회 혁신 릴레이」 행안부와 공동 개최…200여명 참석
- 오시장, 올해 창의행정 원년선언…공무원 적극적 시도·도전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주문
- 지하철 15분 내 무료승차, 온기창고,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등 창의행정 전파
- 서울시 우수사례 정부·타 지자체 공유, 혁신적 공공서비스 발전 도울 것

-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지하철 이동 중 급한 용무로 개찰구 밖 화장실을 가거나 반대 방향 개찰구로 잘못 들어가 요금을 두 번 결제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철 15분 내 환승시 무료 재탑승’을 아이디어로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 아이디어를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해 7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누적이용자 400만명(월평균 100만명), 이로 인한 시민부담은 총 50억원 경감됐다.
- 서울시는 오는 31일(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창의적인 시정 사례를 정부 기관과 타 지자체에 공유·확산하는 「제25회 혁신릴레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혁신릴레이'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로 기관별 이어달리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 이날 행사는 서울시 직원뿐만 아니라 정부, 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혁신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 예정이다.

<오시장, 올해 창의행정 원년선언·공무원 적극적 시도·도전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주문>

- 오세훈 시장은 올해를 '창의행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공무원의 적극적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직접 실행에 옮겨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고성과자에게 충분한 금전적·인사상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 창의행정은 오 시장이 2006년 첫 취임 후 도입한 '창의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정 패러다임으로, 창의시정이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으로 발상전환 계기를 마련했다면 창의행정은 한걸음 더 나아가 본연의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아울러 직원들의 능동적 학습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 스스로 서비스 혁신을 위해 움직이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조직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 현재 서울시 ‘창의행정’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하철 15분 내 재탑승시 환승, 온기창고,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등 창의행정 전파>

- 우선 1부에서는 올 한해 서울시가 추진한 3건의 대표적인 창의행정 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직접 발굴해 제안하고 실행으로 이어진 정책들이다.
 - 첫 번째는 창의행정 1호로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하여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한 제도 개선 사례로 2023년 중앙우수제안에서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두 번째 사례는 ‘온기창고’ 사업이다. 보통 쪽방촌 주민들은 물품을 배분하는 날이면 춥고 더운 날에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지만 온기창고는 필요한 물품을 개인에 배정된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라 편리함을 높이고 자존감을 지켜준다.
 - 마지막 발표는 최근 철근 누락으로 인한 아파트 부실 공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기록관리’다.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해 부실공사를 책임감 있게 예방하고 시민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한다.
- 2부에서는 직원들이 창의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방안을 담은 ‘서울시 창의행정 인사혁신’을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조직문화로 정착시킬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조직문화 공감 토크’도 이어진다.

- 먼저 소개할 ‘서울시 창의행정 인사혁신’은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실행한 직원에게 파격적 보상을 통해 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창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이어지는 공감토크는 서울시 조직문화에 대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고 창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다.
- 마지막으로 국민·시민 편의와 안정과 행정효율성 등 혁신사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5곳의 최초·최고기관도 선정해 인증서도 수여한다.

연번	기관명	내용
1	서울시 도로관리과	최고 ‘보도 설치·관리’
2	성동구	최고 ‘어르신 안부 확인’
3	송파구	최초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4	광진구	최초 ‘어르신 안부 확인 서비스 시행’
5	서초구	최초·최고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 한편, 26회 혁신릴레이는 다음달 산림청과 행안부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불편사항과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정부와 타 지자체에 공유해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3. 10. 31.(화) 14:00 ~ 15:10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행안부, 서울시, 서울지역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기관(서울시·성동·송파·광진·서초구), 한국행정연구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혁신업무 담당자 등 약 200명
- 내 용 :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인사혁신 성과 발표, 조직문화 직원 토크, 서울지역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서 수여식 등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2'	개회 및 국민의례	
14:02~14:05	3'	인사말씀	서울시
14:05~14:08	3'	축사	행안부
<1부> 창의행정 혁신			
14:08~14:14	6'	창의행정 제도 설명 및 영상 상영	서울시 창의행정담당관
14:14~14:35	21'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 -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시 환승(7') -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온기창고'(7') - 전국 최초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7')	도시철도총괄팀장, 자활지원과장, 방재시설부장
<2부> 조직문화 혁신			
14:35~14:40	5'	창의행정 인사혁신 성과 발표	인사과장
14:40~15:00	20'	창의행정 조직문화 직원 토크(talk)	서울시 공무원(6명)
15:00~15:05	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서 수여식	서울지역 인증기관 5곳
15:05~15:08	3'	차기 혁신릴레이 개최기관에 상징물 전달	서울시 → 산림청
15:08~15:10	2'	폐회	